

# 이렇게 들었다

## 종교간 화해

### 마음이 한 법이 되어...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비구들이여,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화해하며 정령치 않고 유수(乳水)와 같다.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로 보며 살면 이를 화합중(和合衆)이라 설하느니라. <중지부경전>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일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잡아합경>에서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마음 하나 모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교간의 마음 모으기는 더욱 그렇다. 그 마음 하나를 돌리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톨릭의 수장으로서의 처음으로 최근 그리스와 시리아, 몰타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유희의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선 교황은 이들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종교간의 화해를 적극 추진하고자 했다.

교황은 첫 기착지였던 그리스에서 크리스토폴로스 그리스정교회 대주교를 만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신자들이 행위나 태만으로 정교회 형제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사과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가진 기독교도 수만 명을 상대로한 미사에서도 "종교간의 화합 및 중동평화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으며, 다마스쿠스의 우마야드 이슬람사원에서는 "이슬람 지도자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의 위대한 종교공동체를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대화의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양 종교간의 화해를 강조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올해 팔순이다. 지난 78년 로마 교황청에 착좌한 이후 23년 동안 세계 140여개국을 순방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몰을 아끼지 않았다. 사상과 정경,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화해를 추구하고, 종교간의 대화함을 모색했다.

교황의 이슬람 방문으로 고조된 종교화해의 분위기를 진정한 종교간의 화해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랜 반목과 원한을 풀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정토의 세계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 화해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은자 기자

# 유전자 변형 위험은 '내일·저기'

## 불자 세상보기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 아기 30명이 출생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 장애를 겪고 있는 불임여성의 난세포 세포실에서 일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 다음 정상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삽입하여 생식력을 증대시켜 임신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비록 미미하지만 3명의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어, 적어도 유전적으로는 부모가 되어, 적어도 셋째가 된다. 국내에서도 모 불임센터에서 세포질 이식술에 성공하여 현재 한 명의 태아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유전자 선택에 의한 아기 출산에 이은, 생명공학이 이룬 또 하나의 쾌거이다. 바야흐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생명의 책'이라 일컬어지는 유전자는 '판도라 상자'에 비유되듯이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다. 생명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인 생명공학이 서서히 이 베일을 벗겨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 유전자 변형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 식품(GMO)의 안전성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전

## 부모가 셋인 아이

### 국내서도 이식 성공

인류에게 선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언제나 현재적 이득에 눈먼 유전자 변형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무런 위해가 없다고 유전자 변형 기술은 안전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안정성의 물음은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저기'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격세유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이 다음 세대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안전한 것이 한국 토양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잠재태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 여기'의 환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변형된 유전자가 어떤 이상을 야기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아기가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유전자 변형 아기를 통해 태어난 다음 세대의 아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는 미래 아기에 대한, 약자에 대한 또 하나의 학대이다. 안전성이 검증된다 해도 여전히 생명



김상득  
전북대 교수  
윤리학

윤리의 문제는 남아 있다. 유전자 변형 아기가 곧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은 참이 아니지만, 유전자는 인간의 정신이나 신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즉, 유전자 변형은 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바꾼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業(karma)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야 할지 모른다. 이 지상에서 내가 잘못된 업을 쌓아도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좋은 과확자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업보는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 언젠가는 생명공학자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열린마당

## 교수불자권 '불교와 교육' 세미나

### "지혜·자비 겸비한 불제자 양성"

박선영 교수 <동국대·교육학>



불교교육의 이념은 자각을 통해 지혜를 체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자각은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불교교육의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각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교육의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부처님은 마지막 만행 중에 아난에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부디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보면 불교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은 예측불가능하거나 모방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상이다. 이는 대승불교를 '서원의 실천불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서원에는 국토성취원(國土成就願)과 중생성취원(衆生成就願)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토성취는 자연적, 물질적, 사회적 조건이 모두 쾌적하고 풍부하며 정화된 것을 뜻하고, 중생성취는 인민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어 성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각을 통해 얻은 지혜는 연기법의 깨달음이며, 자비는 자타불이의 동체대비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중단의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의 이수를 필수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그 교학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므로 같은 불교라 하더라도 교리나 수행에 있어서 너무나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승가대는 불교학, 역경학, 포교사회학, 사회복지학과 등 전통교육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식 교육을 조화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의 승가대학은 중앙승가대학의 대학원으로 전환하여 한역의 경론을 중심으로 하되, 각 지방승가대학을 전교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스님의 학력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공인은 보다 능동적인 연구와 교류의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 "깨달음과 중생제도에 초점"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



불교교육을 논할 때, 먼저 최종 피교육자인 재가자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교교육은 출가자 개인의 깨달음에 편향돼 왔다. 이는 선(禪) 우위의 전통을 지키는 데는 훌륭한 토양은 되었으나, 불교일반 특히 원시불교나 불교사, 불교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족과 중단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사교입선에 대한 오해로 인해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전통을 따른다고 했을 때, 마땅히 불교교육의 이념은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교교육이라는 문제는 전통적인 교육이론과 진보교육이론을 어떻게 종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만약 우리가 진보적인 교육이론의 입장을 취하면 불교교육의 특수성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전통적인 교육이론의 입장을 취하면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교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전통과 진보의 조화 없이는 출가자 자신의 현실적응능력 및 지도력의 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행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사회적 활동이나 사회행정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승가교육 프로그램은 중단·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중단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중무행정, 사원경제 및 사찰경영, 신도교육 및 조직, 문화재 관리 등 불교공동체의 현실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와 관련하여 불교사회복지,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지도자론 등을 포함한 각종 응용불교학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보살정신 키우는 불교교육"

김용표 교수 <동국대·불교학>



불교교육의 체계는 이상적인 불교인의 양성이라는 대명제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발보리심은 보살을 말한다. 발보리심은 무명의 마음을 정각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즉 마음을 일으켜 자신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불교적 인간교육의 첫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불교인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항상 선정에 들어 불성의 현전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며,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모든 존재를 자신의 생명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이다.

불교교육은 이러한 인간을 양성해야 하며, '방편'이라는 불교적 방법에 의해 교육시키되, 피교육자 자신의 노력과 교육자의 교육활동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일 수 있다. 방편이라는 교육 방법은 피교육자의 능력과 흥미와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위에 행해지는 교육 방법이다. 그러므로 불교교육은 사찰의 법회, 강원, 율원, 선원 등의 상황이나 피교육자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나라에 전송되어 오고 있는 갖가지 수행·수행 방법과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갖가지 수행 방법들을(보리도차제론)에 따라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의 불교 전통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모든 불자로 하여금 진정한 보살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여법한 수행·수행 체계가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교육은 사찰의 법회, 강원, 율원, 선원 등의 상황이나 피교육자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적 인간 교육은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인 스스로 자신에게 귀의하며 법의 등불을 밝혀내는 자기 교육의 노력과 함께 이를 밖에서 도와주려는 선지식 내지 불교 교육자의 교육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선무도여름수련회

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1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 (1주, 2주, 1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단체 위탁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다도, 한국무용)
- 동참금 : 학생 (1일 - 2만 5천원, 1달 - 60만원) 일반 (1일 - 3만원, 1달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단체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 준비물 : 개인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1천 5백년 전 신라시대에 청진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지연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훈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 일과표

-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 3천배 참회 및 전대중이 1일 금식)
- 5시 - 좌선 14시 -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감상 (학생)
- 6시 - 조경, 동산 16시 - 윤력(농장 채소 가꾸기, 청소동)
- 7시 - 아침공양 (발우 공양) 17시 - 휴식, 산책 (행선)
- 8시 - 오전 수련 18시 - 저녁 공양
- 11시 - 108배 참회기도 19시 - 예불 후 학생은 자아를 향한 서신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 13시 - 독서와 사색 19시 30분 - 저녁 수련(일반인) 21시 - 점교 및 취침

■ 입산 후 개인 지출, 이생교계, 술, 담배, 간식을 먹여지지 않습니다. ■ 수련회 참가자는 손에부럼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선무도협회 대금강문 선무도대학

## 순달삼사순례는 아미타불이 계신곳으로



골굴사는 1천5백년전 신라시대에 마애아미타불(보물 581호)과 12처 석굴이 조성되었으며 인도의 아잔타와 중국 돈황의 축소관이라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석굴사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천오백년 미소과 중생들의 삼세 업장을 소멸하고 극락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거리에 지장기도로 유명한 기림사와 오어사, 동해의 문무대왕 수증릉과 같은 사지, 석굴암 등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내에 있는 선무도 대학과 수련모습을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054)744-1689 홈페이지 golgulsa.com sunmudo.com

## 호스피스·간병과정

(3개월 과정 : 78시간)

개강일 : 5월 22일 (화) 오후 2시  
강의기간 : 5월 22일 (화) - 8월 24일 (금)

- ◆ 강의시간 : 매주 화·금 (오후 2시~5시)
- ◆ 대 상 : 19세이상 ~ 60세까지의 남·녀 ◆ 수강료 월 6만원 (교재비 포함)
- ◆ 특 전 · 수료증 수여 · 봉사활동 지원 · 유급활동 위한 지원 가능

### 교육내용

- 인간의 이해 및 간병인의 자세
-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산모간호학 애기돌보기
- 말기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 불교 호스피스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호스피스의 역사와 철학
- 임종 간호와 영적간호
- 치매 환자 간호
- 건강 증진법
- 음악과 건강
- 건강과 질병(노인간호)
- 경락 이론 및 마사지
- 생명의 의미와 가치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3회
- 병원견학 및 실습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 기초간호실습
- 한의학 이론과 한방 간호
- 만성질환과 간호

##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야빌딩 4층

# 051) 462-5670

## 호스피스·간병봉사자

본 대학의 호스피스·간병봉사자는 수료후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건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